



[해설]
삼성-LG전자
'8K TV' 정면 충돌
03



“콘텐츠 육성” 말로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콘텐츠 육성, 1조 지원”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실감콘텐츠 선도 투자로 시장 개척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콘텐츠는 문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산업이 됐다”며 “콘텐츠산업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콘텐츠 인재캠퍼스 내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 참석, “산업화·민주화 위에 콘텐츠·문화의 힘이 더해지면서 대한민국 자긍심은 한층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의 추가 대책이다.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및 신한류 확산 등 환경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찾은 콘텐츠 인재캠퍼스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들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동하도록 최신 제작 장비와 공간을 갖춘 요람으로 불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만든 콘텐츠가 세계를 행복하게 만든다. 외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대화 소재가 K팝·K드라마다. 방문하는 나라마다 우리 노래를 따라 부르고, 우리 웹툰·캐릭터·드라마 등을 즐기는 젊은 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도 빼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콘텐츠가 국경을 넘어 ‘한류’를 만들어낸 지 20년, 처음엔 특

정지역에 잠깐 열풍이 거니 했는데 어느덧 우리는 지역·장르를 넘어 세계인들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나라가 됐다. 우리 콘텐츠산업 경쟁력도 높아졌다. 문화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고, 세계 7위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분야로는 반도체 다음 가는 성장세”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콘텐츠 상품 100달러를 수출할 때 소비자·서비스를 비롯한 연관산업 수출이 그 두 배가 넘는 248달러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다”며 “실제로 작년 한 해 한류가 만들어낸 생산 유발 효과는 무려 20조원에 가깝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 면에서도 65만명이 넘는 인재가 콘텐츠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일자리 확대의 중요산업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1조원 이상의 투·융자 정책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퀄리콘텐츠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실감콘텐츠에 대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로 초기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K팝 전용 공연장 조성, 세종학당 확대 등 전 세계로 확산하는 한류를 소비재, 관광 등 연관산업의 성장과 연계하기 위한 전략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2022년 까지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 150조 원, 수출액 134억달러를 달성하고 7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한류에 따른 직접적인 소비재 수출을 50 억달러, 한류 관광객은 180만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실제는 ‘기울어진 운동장’

거칠것 없는 넷플릭스 '첩첩 규제' 토종 OTT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규제가 통하지만 그렇지 않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정부 규제를 안 따르면 방법이 없다. 유럽처럼 세금을 내도록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기존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의 발목을 붙잡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 대한민국 전체 미디어 규제 수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16일 열린 토종 온라인동영상(OTT) ‘웨이브’ 출범식에서는 서비스 출시도 전에 이 같이 규제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디어 박람’ 속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미디어 시장 잠식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국내 사업자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규제를 적용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망 사용료를 두고 인터넷 사업자(CP)들 또한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국내 사업자들은 통신·방송 전방위적으로 낮은 규제에 맥을 못 추는 상황에 빠졌다.

◆ 엉성한 규제에 ‘기울어진 운동장’ 가속화 우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CJ ENM과 JTBC도 자체 OTT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했다. 전날 지상파와 SK텔레콤의 ‘웨이브’ 서비스 발표에 이은 토종 OTT의 출범이다.

애플, 디즈니까지 국내 시장 진입을 앞둔 가운데 국내 미디어 사업자들이 힘을 모아 토종 OTT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국내 미디어 시장은 넷플릭스, 유



모델들이 18일 출범하는 OTT 서비스인 ‘웨이브’를 홍보하고 있다.

/콘텐츠웨이브

글로벌 사업자 국내시장 잠식 속
김성수, 통합방송법 수정안 발의
OTT, 유료방송 규제 적용 골자

망 사용료도 국내외 기업 역차별
폐복 年 100억, 네이버는 700억

튜브가 기세를 장악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마블·스타워즈 등을 보유한 월트디즈니와 HBO·워너브라더스 등을 가진 AT&T, 정보기술(IT) 공룡인 애플이 신규 OTT 서비스를 내놓는다.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가운데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글로벌 사업자들에는 국내 규제를 적용할 수 없어 오히려 국내 사업자가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들은 아무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해외 사업자들의 망 사용료는 대표적인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사례로 꼽힌다. 대용량 트래픽을 일으키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보다 적은 비용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페이스북은 연간 100억 원 정도의 망 사용료를 내고 구글(유튜브)이나 넷플릭스는 거의 무임승차 하는 반면,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 정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 규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도 OTT와 같은 뉴미디어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TT 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하는 내용의 방송법전부개정안(통합방송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경쟁상황 평가, 이용약관 신고 의무, 심의 규정 등 유료방송 규제를 OTT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4면에 계속〉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產銀·輸銀, 고유 핵심기능에 역량 집중해야”

김용범 차관 ‘산·수 통합론’ 일축

“산업은행(산은)과 수출입은행(수은)은 고유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통합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동결 산은 회장의 (통합 당위성) 언급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산·수 통합론’을 일축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2013년 마련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르면 산은은 대내 금융 특화기관이고 수은은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라며 “정책 금융기관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4면〉

전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기자들과 만나 “그분(이 회장)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셨지 않나”라며 “그건은 더는 논란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굳이 산은·수은 갈등을 일으켜 우리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나”라며 “아무 의미없는 얘기”라고 했다. 이 회장의 갑작스런 통합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산은과 수은은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이 회장의 ‘사견(私見)’을 공개적으로 무시함에 따라 이번 ‘산·수 합병론’의 승자는 수은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영 기자 hong93@